

사무엘상 25.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다윗 (삼상 23 장 1-29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선지자 갓의 조언에 따라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온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일라’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그일라’로 달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의 공을 인정하며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모아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일라’ 성을 포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성을 빠져 나와 다시금 광야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 황무지까지 다윗을 쫓았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은밀히 다윗을 만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지키실 것이라고 지친 다윗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과의 충돌을 피한 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였고, 갑작스런 블레셋의 침략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 무사히 엔디게 산맥으로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1.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다윗. (1-5 절)

1) ‘그일라’는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유다 땅이었습니다.

- ✧ ‘아둘람 남쪽 4km 지점으로, 가나안 정복 후 여호수아에 의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곳.
- ✧ 당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헤렛 수풀'에서는 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

2) 주목 할 것 -> 블레셋 사람들은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는 것!

- ✧ 곧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추수된 곡식을 탈취할 목적.
- ✧ 아마 모두가 추수를 위해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전투 준비를 제대로 갖추기 전에 일제히 침략해 모든 곡식을 다 탈취하였을 것.

여기서 먼저 깨달게 되는 것 한가지는 악한 사탄은 언제나 온전히 추수되어야 할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도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그 순간을 항상 사탄은 노리며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불필요한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블레셋은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이나 불란을 악한 사탄은 결코 놓치지 않고 이용해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더 하나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전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2 절)

- ✧ 블레셋의 약탈과 동족의 고통에 의분을 느끼며 구원하러 가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 ->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구했다는 것!

4)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 참고: 지금 사용된 ‘구원하라’는 단어 = 히브리어 ‘야쇼’라는 단어,

- 일찍이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했던 사사들에게 사용된 단어! (삿 2:16, 3:9...)
- 곧 지금 하나님은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다윗에게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나서도록 말씀하셨다는 것.. (Klein, Keil, Fay).

4) 그런데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일라’로 출전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3 절)

✧ 지금 사울의 추격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울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란 것!

5) 이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그일라’로 출전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4 절)

✧ 이것은 앞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다윗이 의심했다거나,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였다기 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위해 한번 더 물었던 것.

✧ 이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 이 같은 표현은 이 전쟁이 여호와와 전쟁이 될 것이란 선포! (수 6:2; 8:7; 10:8; 11:8)
-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충분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안심시키고도 남았을 것!

6)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전한 다윗은 ‘그일라’를 침략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5 절)

✧ 주목 : 크게 도륙하며 승리하였다는 것!

- 사울의 추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다윗의 열심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현실의 상황과 형편만 보고 낙담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그일라’를 포위하였습니다. (6-14 절)

1)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6 절)

✧ 문맥상 지난 장 높이 멸망 당할 때, '헤렛 수풀'(22:5)에 있던 다윗에게 도망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로 간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 ‘에봇’은 소매 부분이 없는 긴 조끼 모양의 옷으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등 다섯 가지 색상의 실로 만들어진 대체사장이 입던 의복으로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임을 비롯해 12 보석으로 장식된 판결흉패가 가슴에 부착된 옷이었음.

2)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 ‘그일라’는 지리적으로 높은 언덕에 자리잡은 도시로 주위가 모두 성벽으로 둘러 쌓인 요새였음. -> 그래서 ‘문과 문빚장이 있는 성에 들어가 갇혔도다’

- ✧ 주목 :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했다는 것!
 -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선언..
 - 참고로 그런데! 성경은 여기 ‘넘기셨도다’ 로 표현된 단어는 4 절의 ‘넘기셨다’는 단어와 분명히 다른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4 절 = '나탄' -- 7 절 = '나카르' ('거부하다', '따돌리다', '소원하게 하다' 란 의미))
- ✧ 곧 사울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바람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불의한 계획을 정당화 시켰다는 것!
 - 혹시 우리도 살면서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행동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 ✧ 아무튼 지금 다윗은 분명히 큰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

- 3) 사울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일라 성’ 전체를 포위하게 하였습니다.
- ✧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는 것’ 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적(모압, 아말렉, 블레셋...)을 치러 할 때마다 취했던 행동이었음. (예: 11:7, 15:4, etc.).
 - ✧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지금도 사울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것처럼 백성들을 속여 군사들을 징병했을 것이라고 해석. (Fay).
 - ✧ 그렇다면 점점 더 양심이 무뎠진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악용하여,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 한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
- 4) 사울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뵈을 가져오게 한 후,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 뜻을 물었습니다. (9-12 절)
- ✧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 움직이려는 다윗의 경건한 태도를 발견.
 - ✧ 주목 ->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렀다!
 - 이 같은 명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강조하고 소원하는 의미에서 주로 사용되었음..
 - ✧ 다윗의 두 가지 질문
 - ① 사울이 그일라로 정말 쳐들어 올 것인지?
 - ②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의 일행을 해롭게 할 것인지?
 - 참고 : 11 절의 ‘그일라 사람들’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그일라 지도자들’을 의미.
- 5)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즉시 ‘그일라’를 떠나 유다 황무지를 떠돌았습니다. (13-14 절)
- ✧ 이때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의 수는 600 명 가량 되었음!
-> 곧 400 명에서 200 명이 더 늘었다는 것!
 - ✧ 주목: 13 절, 그일라를 떠난 다윗은 ‘갈수 있는 곳으로 다녔다’
 - 이 말은 정확한 목적지가 정해진 것 없이, 당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다녔다는 것!
 - 곧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한 피난생활을 계속했다는 것.

- ✧ 주목: 14 절, 사울은 매일 마다 다윗을 찾아 해 매었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
 -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시고 찾지 못하도록 보호하셨기 때문!
 - 반대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찬 사울은 단 하루도 평안과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 것!

3. 심 광야에서 다윗은 그리운 친구 요나단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15-18 절)

- ✧ 심(Ziph) 광야 = 오늘의 '텔 지프'(Tel Zif)과 동일시 되는 유다에 속한 성읍. (수 15:55).
 - 위치는 '그일라' 남동쪽 약 21km, 헤브론 동남쪽 약 8km 지점으로 추정되는 산악지대.
- ✧ 주목 ->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
 -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 몸과 맘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다윗을 위해 요나단을 보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 그런데 어쩌면 지금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요나단 자신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요나단은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을 생각하며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

✧ 그럼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했는가?

- ① '두려워 말라' - 위기와 시험가운데 처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 ②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
 -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말 것을 격려..
 - 자신과의 언약을 다시금 잊지 말 것을 부탁..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곤고함에 지쳐있을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주변의 이웃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봅시다.

4. 이때 심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가 다윗을 고발하며, 은혜 입기를 바랬습니다. (19-26 절)

1) 심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① 아마 놉 성읍의 비참함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
 - ②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
 - ➔ 그래서 저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잡아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아부!
 - ➔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
-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보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사울은 자신을 찾아와 다윗을 고발하는 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며, 자신을 도울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 역시나 자신의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축복을 빌어주었다는 것.

✧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고, 그의 삶도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사울은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위선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악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3) 사울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한 반드시 찾아 죽일 것을 결심하며 십 사람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4)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된 다윗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26 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습니다.

- 원어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서둘러 도망하였다는 것!
- 곧 그만큼 십 사람들을 앞세운 사울의 추격이 다윗에게 위협적이었다는 것!

✧ 참고로 다윗은 이때의 상황과 마음을 시편 54 편과 63 편의 시로 기록하였음!

- 참고: 시편 54 편 3 절에서 다윗은 십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무법자들과 폭력배’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생각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음.
- 그러나 4 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 저들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시라고 고백!

5. 이렇게 다윗이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한 전령으로부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27-29 절)

1) 아마도 이 장면은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갇힌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실상 블레셋 군대가 침입한 것은 결코 다윗을 도와주고자 한 것은 아닐 것!

- 그러나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를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 사건을 통해 지금 거의 생포될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결국 블레셋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 곧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잡는 일을 멈추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 그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 다윗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그 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였습니다.

✧ 어원상 그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 ① '미끄러운 바위' 라는 견해 (Gesenius, De Wette, Keil),
- ② '분리의 바위' 라는 견해 (Clericus, Smith, Fay)

- ✧ 개인적으로 문맥상 '분리의 바위'(The Rock of Division)란 뜻이 맞다고 봄..
- 곧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 다윗의 도피를 성공하게 하신 것을 기념한 바위..
- RSV, Living Bible 은 '도피의 바위'(the Rock of Escape)라고 번역..

3) 사울의 추격을 극적으로 피한 다윗은 엔디게 요새로 도망하였습니다.

- ✧ 엔게디'(Engedi)는 '행운의 샘 또는 어린 염소의 샘'이란 뜻으로, 사해 수면에서 약 670m 나 되는 헤브론 동쪽에 위치한 산과 협곡으로 된 지역으로, 한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 20 여 km 의 거리에 걸쳐 있는 산맥 전체를 가리킴..
- ✧ 지금도 도망자들이 이 협곡으로 숨어들어 은신처로 사용할 만큼 추격이 쉽지 않는 곳..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